

참고문헌

- 김성재, “한국 평화교육의 이념과 원칙”, 김 성재 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 신영순, <니콜라스 월터스톨프(Nicholas P. Wolterstorff)의 기독교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2004.
- 윤웅진, 「기독교 평화교육론」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 이규환, <신식민주의 극복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김 성재 편, 「평화교육과 민중 교육」, 서울: 풀빛, 1990.
- 정웅섭, <교회의 평화교육>, 김 성재 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 한준상, <평화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김 성재 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 Williamson, G.I., *The Shorter Catechism, "Question 39 and Answer"*, Vol. II: Questions 39-107, Nutley,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7.
- Wolterstorff, Nicholas P.,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3.
- Wolterstorff, Nicholas P.,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2.

고신 교단선교 창구일원화 정책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Single Window Missionary Strateg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osin)

이복수 / 신학박사: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Prof. Dr. Bok-Soo Lee

- I. 들어가면서
- II. 창구일원화의 개념이해
- III. 교단선교 창구일원화 형성의 배경
- IV. 교단선교 창구일원화의 장점
- V. 교단선교 창구일원화의 보완 및 장려사항
- VI. 창구일원화 정책의 확장으로서
개 교회 선교사역들의 협력기구 조직화
- VII. 마무리하면서

83

83

85

87

93

98

103

주요어 | 선교, 창구일원화 선교정책, 선교교육, 선교협력

요약문 |

고신교단은 이제 해외선교 50년의 역사를 이룩했다. 그간에 수행되었던 창구일원화 선교정책을 점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창구일원화 선교정책의 개념이해로부터 시작한다: 교단 내의 교회들이 교단이 정한 선교기구를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하되 특별히 핵심적인 요소로는 선교비가 한 창구로 집행되는 정책임을 밝힌다. 이어서 고신교단이 창구일원화 정책을 취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해외선교 초기에 선교사를 총회적으로 파송하게 된 것과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고찰한다. 창구일원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 교단의 전체교회를 위한 선교방향의 제시와 선교자원의 결집;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선교사 선발; 체계화된 선교사 훈련; 정책적인 사역현장 파송; 선교사의 효과적인 관리; 선교사의 개인적인 다양한 장점들. 창구일원화 정책의 현재 상황에서 보완해야 하거나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 역시 다음과 같이 고찰된다: 교단선교부가 선교대행 기관으로보다는 관정기관으로 역할; 선교전문인의 리더쉽 발휘; 재정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적인 활용; 과대한 행정적인 기구화 지양; 교회의 선교교육과 선교협력 주도; 선교분부와 현지선교부와의 원활한 관계유지; 좋은 선교사의 선발과 효과적인 훈련; 일정한 규범 내의 자유가 보장된 선교사의 삶을 지적해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단 교회들 가운데 적지 않는 교회가 창구일원화정책과 관계없이 시행하는 개교회의 선교사역도 교단선교와 연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그것에 관한 방안들을 제안한다.

이복수교수

고신대 및 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M. Div). 스코틀랜드 Free Church of Scotland College(Post. Dip. Th) 및 Aberdeen University(Th.M)에서 실천신학 전공. 남아공화국 Potchefstroom University에서 선교학으로 신학박사(Th D) 학위취득. 남아공화국에서 Durban 한인교회 설립(설교목사로 사역) 및 모든민족선교회(Mission For All Nations) 설립(대표로 사역). 현재 고신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재직. 저서로 「사회복음주의」, 「선교와 언어」(공저), 「선교의 목적: 하나님 나라」, 「남아 및 중미 선교

Abstract

A Study of the Single Window Missionary Strateg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os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Kosin) has built its foreign mission for 50 years. At the present moment,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Single Window missionary strategy of the Kosin Church, so that the future of the foreign mission will be more fruitful. The writer begin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Single Window strategy as the following: A missionary strategy in which the churches of Kosin carry into effect their missionary works through a mission board made by the general assembly. In this strategy it is very important for all the missionary expenses to be carried out by the boar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beginning of the Single Window strategy in Kosin is related with two things: One, is the fact

론」(공저), 「크리스천의 바른 삶」,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공저) 및 논문으로 <A Criticism of the Social Gospel>, <The Social Gospel's View of Mission and Its Impact on the Ecumenical Movement and Liberation Theology>, <The Evangelical Attitude Toward Social Activity>, <선교에 대한 이해의 재고>, <의료선교의 중요성과 21세기의 전망>, <교회의 선교적 본질>, <하나님 나라를 사회건설에 둔 선교론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이 있음.

that the first foreign missionary was dispatch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other, is the fact that in the past Kosin churches were in economical difficulty, so that all the churches had to collect the missionary expenses through the Single Window. The Single Window strategy has the following merits: It presents the churches taking part in the foreign mission with direction and also concentrates the missionary resources into one main source; the selection of the missionaries is done through a more objective system; a better distribution of missionaries through a fixed policy; a mor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missionaries; many various benefits for each missionary. The more necessary elements i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strategy are also considered as follows: taking the role of a management organization of mission rather than a substitute machinery; placing missionary experts at the leadership of the mission board; building the financial policy into a more clear and effective application; leading the Kosin churches through missionary education and missionary cooperation; maintaining a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 missionary headquarters and its field branches, and so on. Last but not least,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many churches of Kosin, which carry out foreign missionary works without any relation to the Single Window strategy, be put under this system.

Keywords: mission, the single Window missionary strategy, missionary education, missionary cooperation

I. 들어가면서

2005년은 고신교단 선교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50년간 고신교단은 5대양 6대주에 336명(현재는 44개국에 275명이 사역)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는 교단의 규모에 비하여 적지 않는 선교사를 파송한 결실을 뱂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창구일원화 정책을 취하여 성공적인 사역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단선교 반세기를 맞으면서 지난날의 사역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반세기 내지 미래의 지속적인 사역을 구상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 분수령에 서서 교단선교 창구일원화 정책도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창구 일원화 정책에 대한 개념을 밝히면서, 고신교단이 창구일원화 정책을 취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밝혀본다. 이어서 창구일원화 선교정책이 가지는 장점들을 고찰하면서 미래의 사역을 위하여 본 정책에서 더욱 보완하거나 강화해야 할 사항들도 점검해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단교회들의 선교사역에서 개 교회 단위의 선교활동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상당한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시간과 물질의 중복적인 투자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 교회 단위의 선교사역들 까지도 교단선교 창구일원화를 통한 협력의 방안을 모색해 보는 내용들로 본 논문을 구성한다.

II. 창구일원화의 개념 이해

창구일원화 정책이란 교단교회의 선교를 교단 선교부를 통하여

시행하는 선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의하면 교단 내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훈련하고, 임명하며, 파송하여 관리하는 일을 교단이 정한 기구를 통하여 실시하되,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을 주로하게 된다. 특별히 이 정책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선교사를 돋는 후원비가 교단이 정한 기구를 통하여 지출되는 것이 우선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다. 고신선교의 이러한 창구일원화 개념은 1984년에 만들어진 선교업무규정에 잘 드러나고 있다.

제4조 “(총회선교부의) 성격과 임무”

총회 선교부는 선교업무를 감독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총회에 의해 세워졌다. 선교부는 총회의 대리기관으로 총회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선교정책수립, 선교사 파송관리, 예산 책정, 선교사 후보 선택과 양성, 성경적 선교원리와 실제를 제공하고 지도 격려하는 일, 선교사의 일을 교회에 알리고 기도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기타 선교에 관한 일체의 일이 그 임무 속에 포함 된다.¹⁾

제34조 “(재정의) 지출” 2항

개인, 개교회, 노회 또는 단체의 후원으로 파송되었을 시에도 재정의 관리는 해당 단체에서 할 수 있으나 지출은 반드시 총회 선교부를 통해서 한다.²⁾

III. 교단선교 창구일원화 형성의 배경

고신교단의 창구일원화 정책의 형성은 교단이 형성 되는 초기의 상황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5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아왔던 한국이 1945년 8월 15에 해방을 맞았다.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되었던 주남선, 한상동 두 목사가 석방 되면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구상했던 교회재건과 신학교의 재건을 위한 일을 시작했다. 1946년 5월 신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고, 이어서 6월 13일 진해에서 제1회 신학강좌를 개설한 것이 시작이 되어 동년 9월 20일에 고려신학교의 개교로 이어졌다.

한편 한국교회의 교회쇄신을 위한 운동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여기에 가담된 사람들이 친일성격을 지닌 교권주의 자들에 의하여 탄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장로회 총회로부터 부당하게 축출되었다. 축출된 인사들은 결국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남법통노회로 남게 되었으며, 1952년 9월 11일 진주 성남교회당에서 역사적인 총노회가 조직되었다. 1955년 4월 19일 제4회 총노회가 부산 남교회에서 모였을 때 총노회의 상비부로 선교부를 조직했는데, 이 기구가 계속하여 교단의 선교를 주도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1956년 9월에 부산 남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가 구성되면서 제6회 총회로 명명되었는데, 이때 교단총회의 출생을 기념한 해외선교사 파송의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 김수음,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서울: 도서출판 책사랑, 1990), 113.

2) *Ibid.*, 121.

서 제7회 총회가 열린 1957년에 9월 20일에 부산 남교회에서 김영진 선교사를 대만에 파송하는 최초의 파송식을 가지게 되었다. 교단의 첫 선교사 파송이 교단적인 배경에서 이루어 졌으며 뒤이어 파송되는 선교사들 역시 총회차원에서 계속되었다. 이러한 파송의 절차 외에도 선교사 파송의 초기부터 선교사의 재정 후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쳤다. 따라서 총회는 선교비를 “노회별로 할당하기에 이르렀고, 각 노회는 선교부를 설치해 하고 회계를 선출하여 해 노회에 배당된 선교비를 수금하여 총회선교부 회계에게 매월 정한 시기에 송금하도록” 결의했다.³⁾

이러한 체제아래 출범한 교단의 선교는 1980년에 모인 제30회 총회에서 교단 선교부관할하에 상설기구로 해외선교국의 설치를 가결했다. 그리고 동년 12월에 교단선교정책에 관한 첫 문서라고 할 수 있는 <해외선교업무규정>을 발행했다.⁴⁾ 이 규정에 의하면,

특히 선교사는 ‘총회산하 개인, 단체, 교회나 노회의 후원으로 파송될지라도 총회선교부 관할 하에 있게 되며 그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총회 산하 선교기관의 모든 재정은 반드시 선교부 정책에 의하여 사용되며, 계획된 예산안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⁵⁾

3) 이상규, <고신선교 40년 개관>, 「고신선교 40년」(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8), 49.

4) 이상규, 상계서, 66.

5) 이상규, 상계서, 68.

이러한 규정은 선교사의 관리와 후원을 교단의 총회 선교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정책을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고신 교단선교의 창구일원화는 초창기에 선교사 파송을 교단의 총회 차원에서 시작한 것과 재정 후원을 총회의 차원에서 노회에 할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나이가서 총회 차원의 명문화 된 규정이 정책으로 작용하면서 확고하게 다져져 나갔다고 할 수 있다.

IV. 교단선교 창구일원화의 장점

교단선교 창구일원화는 교단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마련된 정책으로서 이미 교단 전체 교회를 회원으로 하는 기반과 제도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창구일원화를 통한 선교는 회원교회들의 협력 안에서 교단교회 전체에 대한 선교방향의 제시와 선교자원을 총괄 관리함으로 선교사역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창구일원화가 정책이 가진 장점적인 요소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자.

(1) 교단교회 전체의 선교 방향제시와 선교자원의 결집

창구일원화 정책은 단순히 선교사의 후원비가 한 창구로 들어와서 지출되게 하는 정책이상으로 교단 교회 전체의 선교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고취하며, 선교의 협력을 모색하는 일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초교파적으로 모인 선교단체보다는 총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마련된 창구일원화 정책 아래서 더욱 용이

할 수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2) 폭넓은 대상자들 가운데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선교사 선발
교단선교의 창구일원화 정책에 의하면 선교사 선발 대상은 교단
교회 전체에 속한 지원자. 따라서 개교회가 개교회 안에 있는 대상자
들을 선발하는 범위보다는 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나아가서 “전문성
을 갖춘 사람들이 선교사 선발 과정에 참여해야”⁶⁾ 하며, 선발의 기준
역시 객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객관
적인 기준으로 선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토대 역시 개교회가 마련하
기란 쉽지 않으나 교단 선교부는 이미 제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면에서 창구일원화의 교단 선교는 더욱 폭넓은 선교지원자들을
더욱 객관적인 선발의 잣대로 선발할 수 있어서 개교회가 선발하는
선교사보다 더욱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체계화된 선교사 훈련

선교사의 훈련이란 전인적인 제자훈련으로 성경지식과 선교학적
인 전략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영적 생활 훈련 및 신체적 단련, 그리고
선교지 생활에 대한 훈련을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⁷⁾ 그 외에도 문화
적응과 언어 습득, 세계관과 가치관 연구, 팀사역, 사회개발 사역, 등
다양하다.⁸⁾ 개교회는 잘 훈련된 유능한 선교사를 파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개교회에 의하여 파송되는 선교사는 이러한 폭넓은 특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기 어려우며, 혹 훈련의 과정이 있다고 해도 교단 규모가 시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단선부는 교단교회의 다양한 인재들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화된 훈련의 과정을 마친 선교사의 파송에 유리하다.

(4) 정책적인 사역현장의 파송

선교사 파송 역시 객관성이 있는 합법적인 단체를 통하여 이루어
지지 않고 개 교회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때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
황들이 생겨난다. “교직자들이 자신의 해외 여행을 세계선교 활동으
로 과대 선전하여 선교현금을 낭비” 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선교의 명
목으로 무분별한 대형 집회를 열어 정상적인 선교사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⁹⁾ 현재 해외에 파송된 한국의 선교사들은 종
종 가장 입국이 용이한 나라에 정착되다보니¹⁰⁾ 도시 집중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¹¹⁾ 이런 현상들은 정책
적인 파송계획이 부족한 개교회 단위의 선교에서 일어나기 쉬운 일이
다. 그러나 교단 선교의 창구일원화 정책은 선교사 파송에 접법한 절
차를 가질 뿐 아니라 파송지역에 대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6) 김병윤, <타문화권 선교와 선교사 훈련소고>,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안산: 한
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8), 52.

7) 이태웅,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7), 73.

8) 김병윤, 상계서, 59

9) Harold Lindsell, *Missionary Principles and Practice* (Westwood: Fleming H. Revell
Company, 1955), 349.

10) 강승삼, 21세기 「선교길라잡이」(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64.

11) 이태웅, <한국선교사 배치전략 수립의 시도>,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 68.

12) 강승삼, 「21세기 선교길라잡이」, 69.

(5) 선교사의 효과적인 관리

선교사 관리란 “한 사람의 인격과 영성, 가정과 사역의 전 분야를 인격적으로 돋는 정감 있는 사역”으로, “선교사역 관리 감독 (Missionary Supervision)”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선교사에 대한 목회적 관리(Pastoral care for missionaries)”를 포함한다.¹³⁾ 그런데 “이제 막 시작된 작은 선교단체에서는 선교회 자체가 줄 수 있는 목회적 관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¹⁴⁾ 따라서 개교회 단위로 파송한 선교사를 개교회가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창구일원화를 통한 교단의 선교부는 관리를 위한 전문 행정기관으로서 본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부서가 선교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선교사의 개인적인 여러 장점들

한 선교사가 교단 선교부에 속했다는 것은 선교단체에 속하는 여러 유익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케인(Herbert Kane)은 선교사가 선교기관과 더불어 일하는데 있는 이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¹⁵⁾

- ① 가족적인 결속 : 인간은 본능적으로 혼자서보다 무리 중에 더욱

13) 강승삼, 「21세기 선교갈라잡이」, 78.

14) Denis Lane, *Tuning God's New Instruments*, 도문갑 역, 「선교사와 선교단체」(서울: 도서출판두란노, 1993), 77.

15) J. Herbert Kane,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백인숙 역,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서울: 두란노서원, 1993), 60-63.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팀의 일원이 아닌 선교사가 낯선 나라에 온 이방인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방해할 수 있는 불안감에 놓일 수 있는데, 단체 혹은 기관에 속할 때 그러한 문제는 도움이 된다.

- ② 재정적인 안정 : 선교사의 사역 기간에 생활비나 사역비가 인상되어야 할 경우에 직접 후원교회에 제안하기 보다는 선교단체 혹은 기관이 선교사 후원교회에 요청하는 일이 매우 용이한 일이다.
- ③ 그리스도인의 교제 : 선교사는 종종 외로운 존재로서 수개월 동안 고립되어 지내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선교단체는 선교사들의 교제에 필요한 모임들을 주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일 년에 한 차례의 임시 수양회를 주선하여 모든 사역자들이 교제와 영감, 토론과 상호 격려를 가지게 한다.
- ④ 상담과 지도 : 선교 단체나 기관에 의하여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경험이 많은 선배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대 위에 있다. 그러나 단체에 속하지 않을 때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식의 처지에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토대를 놓아가야 한다.
- ⑤ 사역의 연속성 : 독립선교사의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나 혹은 안식년을 맞을 때 그리고 정년을 맞으면서 선교지를 영구히 떠나야 할 때 사역의 연속성을 가지는 일이 단체에 속한 경우보다 어려워진다. 그러나 단체에 속한 선교사에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용이하다.
- ⑥ 자녀교육 : 개교회 파송의 독립선교사는 자녀 교육의 문제에 이르면 정말 곤란해 진다. 그러나 단체에 속하게 될 때 큰 단체들

은 선교사 자녀들(Missionary Kids)을 위한 자체의 학교를 가질 수 있으며, 자녀 교육에 더욱 유익한 요소들을 가질 수 있다.

⑦ 기타의 유익들 : 선교단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선교사에 대한 부수적인 유익이 더욱 많다. 일반적으로 선교단체는 선교지와 본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과 서비스들이 있다. 그러한 서비스의 요소들에는 여권과 비자를 보존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서류 수속과 항공표 구매와 예약, 집회주선, 기도 편지 발송, 전보 발송, 그리고 여러 적은 일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일들은 선교사 개인이 처리하기란 적지 않는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개교회 파송의 선교사는 이상에서 언급된 유익들을 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창구일원화 정책을 수행하는 교단 선교부는 선교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비교적 그러한 이점들을 누릴 수 있다.

고신교단은 창구일원화의 정책이 가진 장점들을 비교적 잘 활용한 것으로 “교회 성장 면에서는 한국교회에서 그리 성공한 교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선교에서는 비교적 교파서적으로 선교를 하는 교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¹⁶⁾ 물론 미비한 요소들이 없는 바가 아니며, 계속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 많겠지만, 창구일원화 즉, “교단선교부가 선교를 총괄하였다는 점에서 교단선교 중에는 비교적 앞선 셈이다.”¹⁷⁾

16) 전호진, <고신선교 40년의 전략적 고찰>, 「고신선교 40년」(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8), 120.

17) 전호진, 상계서, 130.

V. 교단선교 창구일원화의 보완 및 장려사항

교단선교 창구일원화가 가지는 여러 장점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교단교회들의 선교사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는데 필요한 보완의 요소들도 있다.

(1) 교회의 선교대행기관이라는 이해보다는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사역

선교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사역이다.¹⁸⁾ 따라서 “단독교회의 선교가 결코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다.”¹⁹⁾ 물론 “선교는 교회의 사업이라고 할 때 그 교회가 개교회인지 총회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다.”²⁰⁾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있어서 더욱 확실한 것은 총회적인 차원 이전에 개교회가 선교의 본질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선교는 교회 사업이라고 할 때 그교회가 총회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개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선교부가 교단 교회들의 선교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보다는 선교를 관장하는 사역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부합하는 선교부의 사역은 창구일원화를 통한 교단의 사역으로 표명하기보다는 교단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사역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18) 이복수,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의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이근삼 박사 사역50주년 기념 논집), (서울: 총회출판국, 2002), 504.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1991), 372.

19) 전호진, 상계서, 132.

20) 정호진, 상계서, 131.

(2) 선교 전문인이 교단선교 기관의 리더쉽으로 활동

한 기관의 책임자는 그 기관의 방향과 사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선교와 관련한 기관의 리더쉽은 선교 전문인에 의하여 발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리더쉽의 형태를 취하지 못한다면 창구일원화의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다음의 지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단 내에서도 교단선교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선교부가 때로는 비전문가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과 선교부원들이 역시 비전문가들이고 또 선교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목사와 장로들이 선교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에 열심인 교회들이 불만을 표시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적인 선교회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²¹⁾ 따라서 “선교단체가 공신력을 이미 갖고 있고, 책임있는 지도자들과 선교전문가에 의하여 운영될 경우 지역교회는 그 선교단체와 소속 선교사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²²⁾

(3) 재정정책의 투명화와 효과적인 활용

일반적으로 한 기관의 재정정책의 투명화와 효과적인 활용은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교단선교 창구일원화를 주관하는 선교부는 이러한 면에서 교단교회들로부터 신뢰를 가지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는 정성껏 후원금을 내어 선교부(회) 정책수립과 시행에 함께 참여하고, 선교부는 올바른 청지기직을 감당하여, 선교사 또한 그 정책대로 재



21) 전호진, <고신선교 40년의 전략적 고찰>, 136.

22) 이태웅,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117.

정을 잘 사용할 때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²³⁾ 아울러 불필요한 활용으로 보이거나 낭비성으로 보이는 활동들을 추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4) 과대한 행정적 기구화의 지양

선교부가 과대한 행적적인 과제들만 개발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현상에 이르면 행정적으로 선교사를 관리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고 말 것이다. 선교사의 행정적 관리차원 이상의 육성과 활동지원, 정보제공,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항들은 현지선교부에 대폭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교파 선교단체들은 선교사의 관리를 위하여 현지의 선교사 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지지하고 있는²⁴⁾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교단 내의 선교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교단교회의 선교교육과 선교협력을 주도

선교부가 교단선교 창구일원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선교비 후원자로서의 교회와의 관계 이상으로 교회들의 선교교육을 담당하여 선교적인 관심과 불려일으키며, 나아가서 교단 내의 교회들이 선교에 협력하도록 이끄는 역할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

23) 강승삼, 「21세기 선교길리잡이」, 156.

24) 문상철, <한국선교의 현황과 과제(1998)>,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 44

할들을 위해서는 선교관련 기관들과 협력하는 체계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고신대학교 내에 국제문화선교학과와 선교대학원, 그리고 신학대학원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들 기관들 내의 선교전문 학자들과 선교부 내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개교회 혹은 시찰단위나 노회단위로 선교교육을 실시하면서 교단교회들의 선교협력을 위한 사역에 주도적으로 역할 해야 할 것이다.

(6) 선교본부와 현지선교부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국내의 베이스와 해외의 베이스는 대단히 주요한 관계가 있어서 전자 없이 후자가 있을 수 없으며, 후자 없는 전자가 무용하다.²⁵⁾ 교단선교의 창구일원화 정책의 확장을 위해서는 교단 선교사로서 이미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와 선교본부의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때로 선교본부와 현지선교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마찰을 빚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전위적인 지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²⁶⁾ 한국의 선교사들이 형성하고 있는 “선교조직은 어떤 일반회사 조직과는 달리 자원봉사 정신과 조직, 이 두 가지를 겸비한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수직 관계만으로 형성될 수” 없고,²⁷⁾ 선교조직에는 성서적인 종의 리더쉽이 더욱 적합한 것이다.

25) Harold Lindsell, *상계서*, 116-117.

26) 이태웅, <한국 선교사는 누구인가?>,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 24.

27) *Ibid.* 27.

다른 하나는 선교본부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현지 선교부와 개인 선교사에게 전달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지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지시는 현장에서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행이 어려운 결정이 전달되면 서로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지의 상황이 고려된 정책결정과 전달은 양편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는데 중요하다.

(7) 최대한 좋은 선교사의 선발과 효과적인 훈련을 통한 파송

선교사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들 가운데 문제성이 들어나는 경우로 인하여 선교단체 전체의 평가를 하락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한 선교단체가 얼마나 강하고 경건한가 하는 것은 그 회원 중 가장 약한 선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선교단체의 힘은 그 재정 능력이나 후원의 정도에 있지 않고 그 인적 자원이 있다.”²⁸⁾ 따라서 선교부는 선교사의 선발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선교사가 파송되도록 함으로 교단선교 창구일원화 정책에 교단교회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8) 일정한 규범 내에서의 자유가 보장된 선교사의 삶

선교사가 선교단체 속하여 일하는데 있는 장점들은 이미 위에서 열거했다. 그런데 단점도 없지 않다. 단점은 많은 장점에 비해 오직 한 가지 선교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다. 캐인은 그 한 가지를 “선

28) Denis Lane, *Tuning God's New Instruments*, 51.

교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고갈 100%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²⁹⁾ 단점은 오직 한가지로 지적되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창구일원화의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교부는 지나친 통제 중심의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다소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입장에서 규정이 지켜지도록 이끌어 나가는 정책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VII. 창구일원화 정책의 확장으로서 개교회 선교사역들의 협력기구 조직화

기독교 선교의 효율성 확대를 위하여 전문화된 다양한 선교단체들의 협력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제 GCR(Great Commission Roundtable)은 말레시아 포트 딕션(Port Dickson)에서 ‘가능성의 비전과 협력의 능력’ 이란 주제아래 모임을 가졌는데,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250여명의 선교지도자들이 지상명령의 효과적인 수행을 완수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토의한 바 있다.³⁰⁾ 실제로 해외선교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와 현지교회의 협력을 위한 파트너쉽(partnership)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왔다. 동일 선교 현장이나 유사한 사역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다국적 선교의 팀이 형성되기도 한다.

29) Kane,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64.

30) 강승삼, <GCR과 WEF 선교위원회 전략회의가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과 전망>, 「한국 선교」 Vol.1, No. 1, 가을호, 2001, 52.

선교단체들 중에는 규정을 마련하여 타 선교단체와의 협력사역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일은 교단 내의 교회들 간에 선교적 협력을 이룩해 가는 문제이다. 현재 고신교단 교회들의 해외 선교는 두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교단 선교부를 통한 창구일원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개교회 중심의 형태이다. 교단 선교부를 통하여 해외선교를 수행하는 교회들은 전체 1600여 교회들 가운데 8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 800여 교회란 교단선교부에 속한 선교사들을 적은 액수라도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을 의미한다. 창구일원화를 통한 교단선교가 건실하게 발전하여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필자가 아프리카에서 모든 민족선교회(Mission for All Nations)의 책임자로 있는 동안에 때로 타 교단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고신교단의 창구일원화 형태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개교회 중심의 해외선교 형태는 현재 정확한 자료조차 찾기 어렵다. 해외 선교에 비전이 있는 교회들 가운데 교단선교부와 관련 없이 나름대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필자는 교단이 결정하고 수행하는 방향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개교회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선교사역 역시 성경적인 원리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따라서 개교회적인 해외선교를 제도적으로 금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원리적인 이해에 의하면, 개교회의 해외선교 사역은 계속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나는 개교회적인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교회들 간의 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교단 선교부와 개교회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들과의 협력이다. 현재 개교회적인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교회들 간에 어떠한 협력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으며, 교단 선교부와 그러한 교회들 간에 협력사역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협력의 부재로 인하여 개교회적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교회들은 사역의 지속성에 문제를 보이기도 하며, 중복투자, 불필요한 경쟁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교단 교회들 가운데는 근래 C국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다양한 지역으로 파송하고, 적지 않는 물질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들이 서로 협력 없이 각각으로 추진되면서 필요이상의 시간적, 인적, 물질적인 지원들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들과 관련이 있는 사역의 예를 든다면, 신학교 사역을 들 수 있다. C국의 넓은 지역에 각기 신학교를 지원 혹은 운영하면서 각각 한국에서 교수나 목회자들을 현지의 신학교에 보내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 협력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교회간에 협력만 이루어진다면 한번 강의를 맡아서 가게 되는 사람이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여러 면에서 절약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조차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개교회 중심의 사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개교회 중심으로만 사역을 펼쳐나가는 교회들은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협력을 통하여 사역의 효율성을 증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효과적인 사역의 증대를 위한 협력에 관한 큰 그림을 제안한다. 먼저, 개교회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협력사역을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개교회가 파송한 사역자들과 사역지, 그리고 사역의 종류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자료들을 구비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의 일을 수행하여 나가는 것이다. 협의체가 협력의 사안들을 놓고 정규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의견들을 개진한다면 협력 사역은 추진될 수 있다. 비록 위에서 신학교 운영에 관한 경우만을 예로 들었지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개교회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체와 교단 선교부 사이에 협력을 위한 방안이다. 사실 교단 선교부는 교단 내 전체교회의 선교 사역을 총괄지도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재 교단 선교부는 창구 일원화에 속한 교회들만을 총괄하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선교부는 적어도 교단 교회들이 개교회적으로 수행하는 해외 사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이 필요한 일들에 대하여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선교부 내에 이원체제의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 이원체제란 현재 창구일원화 아래 있는 교회들을 관리하는 체제와 개교회로 구성된 협의체를 효과적인 협력의 차원에서 선교부 안에 제도적으로 이끌어 들이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원체제를 마련한다면 교단 선교부는 명실 공히 교단교회들의 모든 해외선교 사역을 파악 할뿐만 아니라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이러한 이원체제의 운용을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세부 지침들이 필요하다. 개교회에 의해 구성된 협의체를 어떤 형태의 구도로 선교부와 관련시키며, 개교회 중심의 선교사역에 선교부가 어떤 범위에서 지도할 수 있으며, 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선적으로 교단선교부와 개교회 협의체가 만나는 장을 마련하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교단교회들의 선교사역 활성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들의 지나친 각개전투 형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때 교단 선교부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국제 GCR의 말레시아 모임은 기독교 선교의 파트너쉽과 네트워크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 한바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협력의 본으로 창세기 1:26과 애베소서 1:3-14,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가지는 통일성이 네트워크 사역에 원리를 주는 것으로 골로새서 4:7과 애베소서 4:1-8, 협력에 있어서 상호존중과 필요성 공급에 대한 원리로 고린도후서 2:12-13, 지상명령의 지대성 안에 포함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마태복음 28:19-20, 선교사역의 실재에 있어서 중복투자, 경쟁, 불협화음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이기주의 제거에 관한 원리로 요한복음 14:12, 그리고 협력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빌립보서 2:5-11을 제시했다.³¹⁾ 사실 GCR이 이와 같이

結論

31) 강승삼, <GCR과 WEF 선교위원회 전략회의가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과 전망>, 53.

협력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를 확인하게 된 것은 선교단체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였다. 그렇다면, 한 교단 안에 속한 교회들이 선교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이면서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VII.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를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으로 남기셨다. 따라서 지상의 교회와 성도는 선교를 본질적 사명으로 부여안고 주님 재림의 때 까지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명의 방향에서 본 교단은 창구일원화의 정책을 처음부터 비교적으로 효과 있게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이란 사람들이 마련하는 일이며, 그 시행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책을 마련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도하심은 무엇보다 중요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번 세워진 정책으로 지난 50년 간 시행해 왔으며 변동 없이 미래에도 시행해 간다면 계속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점검하며 수정 혹은 보완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분명 창구일원화 정책으로 본 교단의 선교는 좋은 결실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적지 않는 장점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보완 장려할 요소들을 잘 적용함으로 교단교회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으며 더 많은 결실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교단교회들이 교단 선교 창구일원화가 이룩한 이러한 결실과 장점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창구일원화 정책에 더욱 협력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 강승삼, 「21세기 선교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강승삼, <GCR과 WEF 선교위원회 전략회의가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과 전망>, 「한국선교」 Vol. 1, No. 1, 가을호, 2001.
- 김병윤, <타문화권 선교와 선교사 훈련소고>,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 안산: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8.
- 김수읍,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서울: 도서출판 책사랑, 1990.
- 문상철, <한국선교의 현황과 과제(1998)>,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 안산: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8.
- 이복수,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의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근삼 박사 사역 50주년 기념 논집), 서울: 총회출판국, 2002.
- 이상규, <고신선교 40년 개관>, 「고신선교 40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8.
- 이태웅,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7.
- 이태웅, <한국선교사 배치전략 수립의 시도>,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 안산: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8.
- 이태웅, <한국 선교사는 누구인가?>, 「한국선교핸드북 1998-2000년」, 안산: 한국 해외선교회 출판부, 1998.
- 전호진, <고신선교 40년의 전략적 고찰>, 「고신선교 40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8.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1991.
- Kane, J. Herbert,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백인숙 역,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3.
- Lane, Dennis, *Tuning God's New Instruments*, 도문갑 역, 「선교사와 선교단체」,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3.
- Lindsell, Harold, *Missionary Principles and Practice*, Westwood: Fleming H. Revell Company, 1955.

기독교대학교의 유형과 상황

Models and Context of the Christian University

조성국 / 교육학박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Prof. Dr. Song-Guk Joh

- | | |
|---------------------------|-----|
| 1. 서론 | 109 |
| 2. 기독교대학교 유형의 일상적 구분 | 112 |
| 3.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대학교의 유형 | 117 |
| 4. 기독교대학교 유형과 상황 | 125 |
| 5. 결론 | 130 |